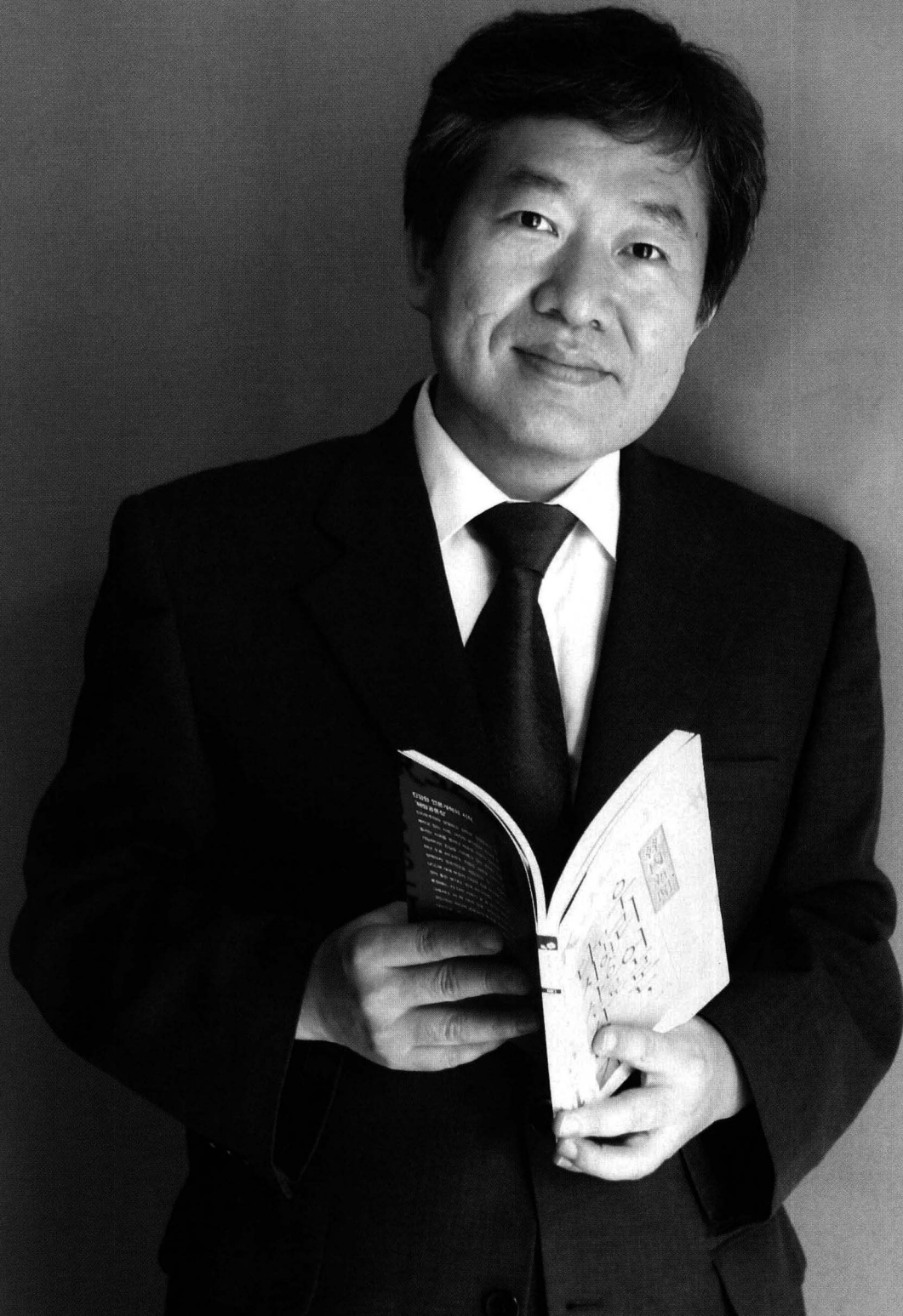


테마만남 | 글쟁이를 만나는 즐거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손석춘 원장

위와 아래, 안과 밖의 경계선을 없애는 해방 공론장 만들어야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과연 국민에게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국민들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실천운동을 기획하고 있어요.”

2006년 2월에 개원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진보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고 실현시키는 조직이다. 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지식캠프> 시리즈를 내고 있다. 첫 번째 책이 손석춘(48) 원장이 쓴 《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이다. 손 원장은 두 번째 책이 어제(7월 12일) 나왔으며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을 보여줬다. 《한국사회 변혁의 주체는 누구인가》도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손 원장은 1984년에 한국경제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첫 발을 디뎠다. 2년 후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로 자리를 옮겼고, MBC 사장을 역임했던 김중배 편집국장이 진보적인 편집을 한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이 일어나자 그도 함께 동아일보에서 나왔다. “신문사 사주에 의한 편집국장 해임은 편집권의 부당한 간섭이라 생각했고, 제가 <기자협회보>에 ‘신문 권력과 편집국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 사주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1991년에 한겨레신문에 들어간 손 원장은 2004년 12월까지 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장을 거쳐 논설위원을 지냈고, 2006년 12월까지 비상임직으로 칼럼을 쓰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 전념하고 있다.

“1991년에 일어난 동아일보 사태도 신문사 자본에 의해서 편집권의 자율성이 침해된 사건인데, <시사저널> 문제도 언론자본에 의한 편집권 침해입니다. 한국의 언론자본 횡포는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사건이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언론개혁의 과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였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손 원장은 언론자본과 편집국간의 관계를 성경에서 찾았다. 언론의 영역은 전문 언론인에게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합치된다고 본다. 그는 한국 언론은 단순한 정파성의 위기가 아니라 진실과 공정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존재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진실과 공정이라는 기본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에서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해방 공론장’이라는 이론을 내놓았다.

“공론장은 모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성역과 금기가 없어야 되는데, 한국의 공론장엔 성역과 금기가 있어요. 성역과 금기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외세의 문제이고, 두 번째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중의 열망을 배제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분단 공론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분단 공론장의 개념은 위와 아래가 분단돼 있고, 안과 밖이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분단 공론장에서 위와 밖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아래와 안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론장에 담아내려면 경계선을 없애야 하는데, 경계선을 없애기 위한 이론이 해방 공론장입니다.”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해방 공론장은 손 원장이 추구하는 언론개혁의 철학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새로운 사회’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사회,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깊어가는 신자유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사회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가 되려면 새로운 미디어가 필요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해방 공론장을 구축해가는 길이다.

그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정당도 있었고, 지금도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지만 고사했다.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직업 정치인이 되지 않고서도 글 쓰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모든 게 정치라고 봐요. 어쩌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죠.” 기자는 끈질기게 정치할 생각에 대한 속내를 물어봤다. 그는 진보정당이라면 고민해 볼 것이라 한다. “저는 민주주의자예요. 한국에서 민주주의자로 살려면 좌파라는, 진보라는 말을 들어야 해요. 저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자입니다.”

신동엽 시인의 <금강>을 읊으면서 문학을 꿈꿔왔던 그는 불혹을 넘겨 첫 소설 《아름다운 집》을 발표했다. 《유령의 사랑》《마흔아홉 통의 편지》에 이어 올해 9월에 네 번째 소설을 세상에 내놓을 참이다. 그의 눈에서 깊고 맑으며 강직함이 풍겨온다. 삶의 칼날에 생체기가 나고 힘든 고비를 넘을 때, 그는 사람을 하늘처럼 여기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을 가슴 속에서 되새긴다. ■